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_053)250-3048~9_ <http://www.daegujobo.or.kr>



† 오늘의 전례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16-20 참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머리신 그분의 지체가 됩니다. 지체는 머리가 하는 일을 함께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 몸의 일부가 된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합니다.

삼덕 젊은이성당 감실
사진_홍창익 비오 신부

제1독서 사도 1,1-11

제2독서 에페 1,17-23

복음 마태 28,16-20

입당송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주님은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알렐루야.

화답송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영성체송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왜 땅만 보면서 사느냐?”

윤지종 미카엘 신부 | 가톨릭신문사 서울지사장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천사들이 사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으니, 이제 더 이상 하늘을 보지 말고 땅만 쳐다보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멍하니 있지 말고, 어서 가서 세상 끝까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느님계로 이르는 길이 열렸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만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땅만 보며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주님께서 승천하신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천사들의 말대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땅만 쳐다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도들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땅만 보며 살지 않고 고개를 들어 주님께서 길을 내신 저 하늘에 모든 희망을 걸고 살기로 약속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인답게 잘 살고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고 있습니까? 혹 땅만 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말씀에 따르면 인생은 기껏해야 7~80년인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과욕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사에 현실적인 손익만 따지고 조그만 희생이나 봉사도 하지 않으려고 핑계대기에 바쁘진 않습니까? 남이야 어찌되든 자기 편한 대로만 행동하고 자기 것만 챙기기에 급급하지는 않습니까? 쉽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는 않습니까? 항상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느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세상일에만 몰두하고 세속적인 것들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미사 빠지기를 예사로 여기고, 신앙생활을 여가활동이나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땅만 보고 살아가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열심히 땅을 딛고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느님 나라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미리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욕심을 비울 줄도 알아야 하고 가진 것을 나눌 줄도 알아야 합니다. 조금 손해 보더라도 희생하고 봉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기심에서 벗어나 남을 배려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일어설 줄도 알아야 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지, 우리 삶의 영원한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께서 올라가신 저 하늘, 하느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고 한 천사들이 만약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웬지 정반대의 물음을 던질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아, 너희는 왜 땅만 보면서 사느냐?”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내신 저 하늘, 하느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



참된 만남의 문화에 봉사하는 커뮤니케이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점점 ‘더 작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고, 사람들은 서로 이웃이 되기가 쉬워 보이며, 세계화는 우리를 서로 의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인류 가족 안에는 분열이 존재하며, 세계적 차원에서 부자들의 지나친 사치와 가난한 이들의 극심한 빈곤 사이의 격차는 치욕적일 만큼 큼니다.

이런 세상에서 대중 매체는 우리가 서로 좀 더 가깝게 느끼도록 해 주고, 인류 가족의 새로운 일체감을 조성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중 매체, 특히 인터넷은 모든 사람에게 만남과 연대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 세상은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와 정반대로 우리가 길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 접속하려는 바람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과 우리를 단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이 참된 만남의 문화에 어떻게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물음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만든 새로운 환경에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에 대한 답을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29)에서 찾습니다. 의사소통을 하는 이들은 서로 이웃이 되며, 의

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 곧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의사소통의 힘을 ‘이웃되기’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대로’를 지나가는 것, 곧 단순히 ‘접속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접속은 참된 만남을 수반해야 합니다. 디지털 대로는 그 거리 가운데 하나로, 흔히 상처받고 구원이나 희망을 찾는 사람들로 넘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그리스도교 메시지는 “땅 끝에 이르기까지”(사도 1,8) 전해질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교회 전체의 선교 소명을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우리는 따스함을 전하고 마음에 불을 놓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사소통이 상처받고 길가에 버려진 이들에게 사랑과 애정으로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겁내지 말고 디지털 세상의 시민이 됩시다. 교회는 커뮤니케이션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 현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교회는 오늘날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바티칸에서
2014년 1월 24일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에
프란치스코

탁월한 용덕, 장애를 봉헌한 신앙

김시우 알렉시오(1782-1815)의 순교이야기



김시우 알렉시오
(1782-1815)

요즘 안팎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을 핑계 삼아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용기를 내고 싶지만 쉽게 일어서지 못하고 안주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때 자신의 장애를 하느님께 봉헌하며 신앙을 불태운 순교자 김시우 알렉시오에게 도움을 청하면 어떨까?

“저도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불구라고 잡아가지를 않는군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진보 머루산 교우촌에 포졸들이 쳐들어와 교우들을 체포하고 자신은 붙잡지 않자 김시우 알렉시오가 울면서 한 말이다. 포졸들이 그가 원하는 대로 체포하자 그는 아주 기뻐하면서 포졸들을 따라갔다.

안동 관아에서 받은 갖은 형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굳건한 신심은 형리들도 놀랄 정도였다. 그는 박해자들에게 오히려 교리를 이해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다시 대구로 압송된 후에도 그는 감사 앞에서 문초를 받으면서도 우(禹)임금의 선정(善政)을 비유로 들어 예수님은 우리 육신 뿐 아니라 영혼까지 돌보는 분이심을 설명하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수난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감사께서도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그분을 흠송하고, 천주교를 믿으십시오.”

그러자 분노에 찬 감사는 김시우 알렉시오의 턱을 으깨어 부수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한 후 사형 선고를 내렸다. 동정으로 살면서 반신불구의 장애까지도 하느님께 봉헌한 김시우 알렉시오, 그의 뛰어난 재능과 변론과 탁월한 용덕은 오랫동안 조선 교우들 사이에 전해졌으며, 모든 신자들이 그를 교회의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충청도 청양의 양반가문에 태어나 신앙을 받아들인 그는 반신불수인 탓에 일하기가 어려워 가난하게 살았지만, 옥중 생활 전까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우들을 가르치고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왼손으로 교회 서적을 필사하여 교우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다른 교우들보다 넓고 깊은 교리 지식으로 열정과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하다가 1815년 33세의 나이로 옥에서 순교하였다.

순교자 김시우 알렉시오님! 이런 저런 이유로 저희 신앙이 나약해질 때 마다 다시 주님께 대한 열정이 타오르게 기도해 주소서. **기도문**



왕과 거지

어느 왕이 행차를 하다가 거지를 만났습니
다. 거지는 왕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왕은
거지를 찬찬히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
니다.

‘이 거지는 어쩌서 구걸밖에 모를까? 참으로
딱하군!’ 그리고 왕은 거지의 잘못된 생각과
생활 태도를 고쳐 주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너도 나에게 무엇인
가 다오.” 그러자 평생 남에게 주어 본 일이 없
는 거지는 말했습니다.

“저는 거지입니다. 저 같은 거지가 남에게
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왕은 호통을 쳤
습니다.

“네 이놈! 남에게 줄 것이 없다니, 너의 그
동냥 주머니에 무엇인가 들어 있지 않느냐?”

이때 거지는 비굴한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이 주머니에는 옆집에서 얻은 강냉이가 들
어 있을 뿐인데요? 이것을 달라는 말입니까?”
왕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지는 아까워하
며 강냉이 주머니에서 강냉이 다섯 알을 꺼내
왕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때 강냉이를 받아 든
왕은 즉시 시종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여봐라, 금이 든 주머니를 열어 강냉이 알
만 한 것으로 다섯 개만 저 거지에게 주어라.”
그리고 왕은 거지를 향하여 한탄하는 말을 했
습니다.

“이 거지야말로 평생 거지밖에 할 수 없을 것
이로구나!” 거지는 그제야 강냉이를 주머니째
왕에게 주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골로**

금주의 성인

6월 1일	성 에네코(수도원장, 오나, 1057년), 성 카프라시오(수도원장, 레펜스, 430년경) 성 유스티노(교부, 순교자, 호교론자, 100~165년), 성 유벤시오(순교자) 성 팜필로(신부, 순교자, 309년)
6월 2일	성 니체포로(주교, 증거자, 콘스탄티노플, 758~828년), 성 마르첼리노(신부, 순교자, 303년경) 성녀 블란디나(순교자, 리옹, 177년), 복자 사독(신부, 순교자, 1260년) 성 에라스모(주교, 순교자, 포르미에, 303년경), 성 에우제니오 1세(교황, 657년) 성 포티노(주교, 순교자, 리옹, 177년)
6월 3일	성 가롤로 르왕가(순교자, 우간다, 1860~1886년), 성 리파르도(신부, 6세기경) 성 모란도(선교사, 클뤼니, 1115년), 성녀 올리바(동정녀, 아나니) 성 체칠리오(신부, 카르타고, 248년), 성 케빈(수도원장, 글렌달로그, 618년) 성녀 클로틸다(왕비, 474~545년), 성녀 바울라(동정순교자, 니코메디아, 273년)
6월 4일	성녀 사투르니나(동정순교자, 아라스), 성 퀴리노(주교, 순교자, 크로아티아, 308년) 성 프란치스코 카라치올로(신부, 설립자, 1563~1608년)
6월 5일	성 도로테오(신부, 순교자, 티레, 362년), 복자 마인베르크(주교, 파더보른, 1036년) 성 보니파시오(대주교, 선교사, 순교자, 크레디톤, 675~754년), 성녀 치리아(순교자) 성 산치오(소년, 순교자, 851년)
6월 6일	성 노르베르토(대주교, 설립자, 마그네부르크, 1080~1134년), 성 필립보(부제, 1세기경)
6월 7일	성 바오로(주교, 순교자, 콘스탄티노플, 350년), 성 로베르토(수도원장, 뉴민스터, 1159년) 성 안토니오 마리아 지아넬리(주교, 설립자, 보비오, 1789~1846년)



교구장 동정 >>>>

■ 노인사목담당 사무실 축복식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5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노인사목담당(담당사제: 박상용 사도요한 신부) 사무실 축복식을 거행하셨다.

■ 만촌1동성당 성모성월 음악회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5월 23일(금) 오후 7시 30분 만촌1동성당(주임: 이성배 사도요한 신부) 성모성월 음악회 '엄마생각 하늘생각'을 관람하시고 신자들을 격려하셨다.

■ 2014년 대구 성령대회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5월 24일(토) 오후 4시 30분 성김대건기념관에서 2014년 대구 성령대회 미사를 봉헌하셨다.

■ 성서성당 견진성사 집전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5월 25일(일) 오전 11시 성서성당에서 견진성사를 집전하셨다.



새주소 사용 2014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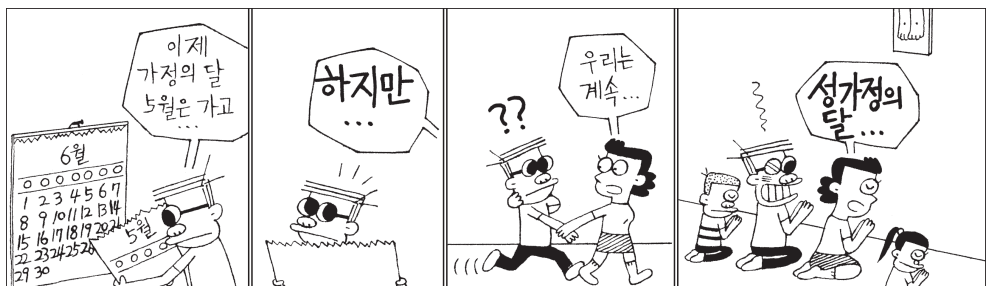
교구 문화홍보실에서는 2014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을 새롭게 발간합니다. 특히 이번에 발간하는 주소록은 도로명 새주소 사용에 맞추어 전면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제 인사 이동 및 개편 등에 따른 최신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판매가 : 5,000원 | 620쪽

구입문의 : 교구 문화홍보실 053) 250-3047~9

1년 12달이 모두

박성규 엘리지오



⑥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 주일)

미사안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6월 2일(월) 11:00 성동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6월 2일(월) 19:30 교육관 성당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6월 2일(월) 11:00 계산성당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6월 7일(토) 10:00 프란치스카눔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6월 2일(월) 11:00 죽도성당	이주사목 후원회 월례미사	6월 7일(토) 11:00 대안성당

성소 | 피정

산내 치유 피정(선착순 9명)

기간: 6.17(화)~18(수) / 매월 셋째 주
내용: 정기모 신부와 함께하는
주고 받은 상처의 치유 시간
문의: 동천성당, 326-5004

마리아의전교자프란치스코수녀회 피정

기간: 6.21(토) 14:00~22(일) 14:00
장소: 부산 양정동 수녀원 / 1만 원
주제: 복음의 기쁨(교황님 회칙)
대상: 33세 미만 미혼 여성
문의: 노데레사, (010)2570-0939

교육 | 모집

아숨(Ad sum) 기도 모임

일시: 매주(화) 19:30~21:00
지도: 김연희(마리아) 수녀
주최: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신청: (010)2649-2045

성모기사회 (작은꽃)모임 회원 모집

일시: 매달 셋째주 토 19:30
장소: 프란치스카눔 (월배성당 뒤)
대상: 20~30대 모든 청년들
문의: (010)7169-1671

제2회 살레시오 전국 청소년 독서 대회

예선: 5.15~6.15 (자유도서를 읽고
주제에 맞게 에세이 1편 제출)
주제: 함께 / 대상: 초3~만 24세 이하
주최: 살레시오수녀회 독서미디어스쿨
문의: (02)844-0888, www.salesioedu.com

골롬반 평신도해외선교 관심자 모임

일시: 6.8(일) 14:00~17:00
장소: 골롬반평신도센터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문의: (010)5061-6722
http://www.columban.or.kr

작은예수회 창립 30주년 감사제

일시: 6.10(화) 11:00~16:30
강론: 박홍 신부, 박성구 신부
장소: 경기도 현리 작은예수회마을
문의: (02)777-6444(지역별 출발있음)

렉시오 디비나 성독 기도 모임

일시: 6.14(토) 10:00 / 참가비: 1만 5천 원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 피정의 집
지도 신부: 허성준 가브리엘(OSB)
문의: (010)7558-5317

내적여정 에니어그램

기간: 6.27~29 / 7.26~28(심화)

장소: 경남 고성 수도권

주최: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도회
문의: 안젤로 수사, (010)3664-3986

바로로 몬테소리 20주년 기념 학술제

일시: 7.26(토) 9:00~15:0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대강당
선착순 마감: 7.20(일) 12:00 까지
홈페이지: http://pmi.daegu.kr

제주 성이시들젊음의집 가족캠프 / 초·중·고 여름 신앙학교

기간: 7.25(금)~27(일) / 29(화)~8.1(금)
8.2(토)~5(화) / 가족 8.7(목)~10(일)
주제: 보시니 참 좋았다(창세 1,31)
문의: (064)796-7711

44차 마신부님 아일랜드(영국) 영어연수

초·중·고: 7.25(금)~8.15(금)
유럽 학생들과 함께 연수
대·일반: 6.23(월)~8.1(금)
주관: 마신부님(아일랜드골롬반회)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관광스페인어: 6.13(금) 9:50
하모니카성가반주: 6.11(수) 13:00
문의: 254-6115(교구청 내)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배임표(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지역사회 최초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부모님께 받은 사랑 이제 돌려드리겠습니다!

백내장수술은 사랑의시작입니다.

의학박사
현·연세대외과교수 원장 **박중원**(소시모)

대구연세안과
☎053.626-8881~5

비염·축농증

코 질환 집중 치료

대구수성점 **코비한의원**

대표원장 이 판 제(루가)

☎053-753-9795 수성구청역 4번 출구 앞

박의현 구심내과 의원

서정희 피부과
Dermatologist Dr. Suh

피부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

성요셉요양병원
(구. 논공가톨릭병원)

매일미사, 상시고해·병자성사, 불성체, 병실순회 기도
치매·중풍·노인성질환 전문 클리닉 운영
24시간 전문간병인·의사·간호사 상주 진료
친화경적 병실 운영, 양·한방 협진

병원장 장 효 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병원 ~~

한영한마음이동병원

병원장/의학박사 손찬락(리피엘)

365일연중무휴진료

*평 일 : 오전 9시~밤 12시 까지
*토·일·공휴일 : 오전 9시~ 밤 9시 까지

☎260-7777 *예약번호 260-7575

서부정류장 관문시정역(구.달성군정리역)

성모발현 성지순례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13일

출발일 : 07월 29일(1차)
08월 05일(2차)

T. 053)253-3399
www.sungjitour.com
(주)성지여행 쏘렐레(유스티노)

백두정형외과
http://baekduos.com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배상근 베드로
신생아 세부전문외과 배상영 미카엘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형준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53-425-5919

NAVER 백두정형외과 검색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한과
시복식을 위한 특별 2차 헌금
일시: 6.8(성령 강림 대축일)**

행사 | 모임

전국 연합 젊은이 성령축제
일시: 6.15(일) 9:30 / 미사 15:00
장소: 교구청 내 교육원 다동 강당
미사집전: 조화길(타대오) 대주교
주관: 한국 젊은이 성령쇄신연합

**성요셉성당 성전건축기금마련
풍기인건 판매**
기간: 6.1(일)~7.15(화)
매일 11:00~15:00 / 주일 12:00까지
장소: 성요셉성당(월촌역 1번 출구)
문의: (010)9509-7755

**칠곡, 평화의 누릿길(예술과 함께하는
토요여성: 작은음악회 등)**
출발: 6.21(토) 9:00, 계산성당 / 2만 원
장소: 왜관수도원, 가실성당, 구상문화관 등
참조: www.dgpbcc.co.kr, 버스이동
문의: 대구평화방송, 251-2610, 21

2014 상반기 말씀잔치
일시: 6.21(토) 9:00
장소: 교구청 내 교육원 다동 강당
주제: 복음의 기쁨에 비추어 본 전례와 선교
마감: 5.31(토) 각 분당 사무실 / 1만 원
문의: 성서사도직, 250-3082

교육 | 모집

23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개설(야간)
기간: 6.12~7.10(매주 목, 5주간)
시간: 19:00~22:30 / 회비: 10만 원
장소: 매천성당
주관: 교구 가정담당
문의: 봉사자, (010)6499-3114

15학년도 베드로관(소신학교) 지원자 모집
고등학교 전(全)과정을 담당사제와
함께 기숙사에서 공동체생활, 학업
은 무학고등학교(경북해양 소재) 재학
대상: 사제성소를 희망하는 중3 남학생
문의: 854-2085, keyofpeter@naver.com

상반기 정의평화위원회 함께꿈월례특강
일시: 6.11(수) 19:00
장소: 1대리구청 강당
주제: 환경과 생명(공기-방사능)
강사: 함원신(방사능급식조례제정 경북대표)
문의: (010)5923-3163

관덕정 주관 6월 영성특강
일시: 6.7(토) 16:00
강사: 서명원(베르나르도) 신부(예수회)
문의: 관덕정, 254-0151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주인성수련원 개관
위치: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부대시설: 식당, 강당, 강의실, 세미나실 등
수용인원: 170여 명
문의: 시설관리팀, 850-3693

인성수련원, (054)777-8002
16회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아학연수
1차: 6.25(수) 8, 12주
2차: 8.24(일) 8,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23회 청소년 필리핀영어연수(4주)모집

가톨릭전통차연합회 회원 모집
월례회: 매월 셋째 토, 11:00
장소: 교구청 내 한옥(안익사)
대상: 봉사하실 분
문의: (010)6716-5262 / (010)6411-1672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수강생 모집
플룻, 바이올린, 오카리나, 통기타,
우쿨렐레, POP, 초코아트, 톨페인팅,
백색건강강좌(무료) / 문의: 476-6211

채용 | 안내

초전성당 사무장 채용
마감: 6.30(월)
자격: 컴퓨터, 운전 가능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문의: (054)932-8021

교구청 경비(영선) 직원 채용
모집인원: 2명, 마감: 6.7(토)
자격: 만 4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신자
제출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제출: 교구청 관리과, 250-3030

길 안 건축
리모델링 전문업
옥상방수, 철, 단열시공
판별, 창호, 철거
☎ 053)556-6257 김기석
010-6608-6257 (다니엘)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100년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새로운 100년
'대가대 르네상스 시대' 를
열어갑니다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교육
함께하는 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100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 · 원장 정순우(요선)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척추와 어깨·무릎을
치료하는 14명의 의료진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지하철 1호선 송현역 2번 출구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8827-6207 부산 051)817-3885~8
서울 02)579-3889 02)3141-3888
http://www.mjms.co.kr / 대표 김순자 (마리아)

신랑각시 결혼정보
전문직 · 초혼 · 재혼 · 만혼
서울 사무실 흥대 앞
이원교(요안나) | 20년 경력
(053)471-0707 · 016-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덕동 영대병원 사거리

목조전원주택 분양/시공
21C HOUSING
21C 주택산업
이정수 마리아
경산조폐공사정문 앞
(053)817-0322 | 010-2624-0322

www.appleuro.com
에플비뇨기과
비뇨기과 원장 강일(베드로)
전문의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 암검진)
요로결석클리닉(24시간 췌석)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